

중기부, 글로벌 진출 기업지원 강화…관세 리스크 대응

■ 새해 중기·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

**수출바우처 추가 한도…국제운송비 상향 조치 연장
뷰티·패션 등 4대 K-소비재 수출전략 품목화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을 대상으로 6867억원을 투입, 통상 환경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을 강화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이런 내용의 '2026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외 관세·물류 리스크 대응, 수출시장 다양화, K-소비재 글로벌 진출, 창업기업 스케일업, 소상공인 수출 전환 등을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수출바우처 사업은 올해보다 226

억원 늘어난 150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미국 등에서 강화되는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관세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바우처와 통합해 기업의 접근성을 높였다.

기업당 최대 5000만원을 추가 한도를 부여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올해 한시적이었던 국제운송비 2배 상향 조치(3000만원→6000만원)를 연장하고, 참고보관·배송·포장 등 종합 물류대행 서비스와 바이어 요청에 의한 무상 샘플 배송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 전시회와

상담회 지원 예산은 198억원으로 올해보다 40억원 증액됐다.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진출사업도 356억 원으로 50억원 늘어나 글로벌 쇼핑몰 입점, 자사몰 구축·운영 등에 지원된다.

중소기업 해외 진출 거점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내년 상반기에 중국 청다오에서도 가동된다.

GBC는 현재 14개국에 22개소가 있다. 해외 현지 협력 단체와 연계한 '글로벌 베이스 캠프'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뷰티·패션·라이프·푸드 등 4

품목화를 추진한다.

2030년까지 수출 유망 중소기업 500개

사를 발굴하고, 올리브영·무신사·신세계디에프·롯데마트 등 민간 기업과 협력해 스마트공장 구축, 투자 설명회(IIR) 개최, 지식재산권 매칭 페어 등을 지원한다.

K-뷰티 지역 수출거점의 시범지역을 내년에 1~2곳 선정하고, 2030년까지 8개 내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기업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인 어려운드 엑스(Around X)에 오픈AI, HP, 벤츠, 아스텔라스 등 4개사가 새롭게 참여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글로벌 기업 17개사가 어려운드 엑스를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유망 소상공인 제품을 수출형으로 전환하고 맞춤형 해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95억2000만원 규모의 '글로벌 소상공인(K-소상공인) 육성사업'을 신설한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미국 관세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수출 중소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통합공고 시기를 앞당겼으며 수출자금이 신속히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gwangnam.co.kr

살아나는 광주 고용시장…취업자 1만9000명 ↑

호남통계청 11월 고용동향

광주 지역 취업자는 지난달 1만9000명이 증가한 반면 전남은 8000명이 줄어들며 고용 흐름이 상반됐다.

업종별로는 전기·운수·통신·금융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취업자는 증가했지만 농림어업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부진했다.

국가데이터처호남지방통계청이 10일 발표한 11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 취업자 수는 78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9000명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은 43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8000명, 여성은 35만3000명으로 1만1000명 각각 증가했다.

고용률은 61.6%로 전년 대비 1.7%p 상승했다.

남자는 69.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p, 여자는 54.2%로 2.0%p 각각 올랐다.

산업별로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만9000명 (5.5%), 전기·운수·통신·금융업 5000명 (5.7%), 건설업 1000명 (0.9%)이 각각 증가했다.

반면 농림어업 2000명 (-12.6%), 광공업 2000명 (-1.7%), 도소매·숙박·음식점업 1000명 (-0.7%)이 각각 감소했다.

실업자는 1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3000명 (-13.3%) 감소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구조 (↑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감)



61.6% 전년비 1.7%p 상승…전남은 8000명 감소
전기·운수·서비스업 '개선' 농림어·음식업 '부진'

2.4%로 1년 전 보다 0.4%p 하락했다.

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6000명 증가한 80만3000명이며,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전년 대비 1.5%p 상승한 63.1%였다.

비경제활동인구는 47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명 (-4.1%) 줄었다.

전남 취업자 수는 100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8000명 감소했다. 남성은 56만4000명, 여성은 44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각각 3000명, 5000명 감소했다.

고용률은 66.3%로 1년 전 보다 0.6%

p 하락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73.2%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여성은 59.1%로 0.5%p 각각 하락했다.

산업별로는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만7000명 (24.6%),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만1000명 (3.2%), 광공업 3000명 (3.1%)이 각각 증가했다.

반면 농림어업 2만2000명 (-10.4%), 도소매·숙박·음식점업 1만 6000명 (-8.6%), 건설업 1000명 (-1.1%)이 각각 감소했다.

실업자는 2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명 (-8.5%) 감소했다. 실업률은 2.2%로 1년 전 보다 0.2%p 하락했다.

경제활동인구는 103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명 감소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7.7%로 0.9%p 하락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49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4000명 (3.0%) 증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표본조사구 3만6000가구 중 광주 1600가구, 전남 1800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관련 자료는 국가데이터처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또는 국가통계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gwangnam.co.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2025년 지역먹거리 지수'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 지방정부 29개를 시상했다.

aT, 지역먹거리 우수 29개 지자체 시상

나주시·장성군·해남군 등 S등급 사례 공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2025년 지역먹거리 지수'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 지방정부 29개를 시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먹거리 지수는 지역먹거리 계획과 관련된 지방정부의 실천 노력과 확산 정

도를 평가하며, 지난 2019년 처음 개발돼 시범사업을 거쳐 6년째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159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농촌·도농복합형 평가와 69개 자치구 대상 도시형 시범평가를 함께 진행해, 총 29개의 지역먹거리 우수 지방정부가 선정

되었다.

최고등급인 S등급은 전북 완주군, 전남 나주시, 해남군, 장성군, 충남 청양군, 예산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대상을 차지했다.

aT은 이번 평가를 토대로 S등급의 정

책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먹거리 지수 지

카톡 친구탭 내주 열린다…15일부터 복원 시작

순차적 업데이트…목록형 기본 유지·피드형은 선택

카카오는 다음 주부터 카카오톡 친구탭 첫 화면을 셀프 전 대작으로 개편하기 이전으로 복원한다.

10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주 과거 사용했던 카카오톡 친구탭 목록을 되살리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이르면 오는 15일부터 순차 업데이트를 할 계획으로, 이용자에 따라 실제 업데이트 날짜는 짧으면 며칠, 길게는 일주일 정도 유동적일 수 있다.

업데이트가 실행되면 지난 9월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발표하면서 격자식 피드

형태의 친구탭을 내놓은지 석 달 만에 친구목록도 되살아나게 된다.

업데이트 핵심은 카카오톡에 격자형 피드 친구탭을 선택 옵션으로 두는 것이다.

이용자가 원할 경우 개편 전 친구탭을 택해 원상 복귀를 꾀할 수 있고 지금의 친구탭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 카카오는 친구탭 복원 외에도 예전에 적용했던 기능(스트레스 금리)을 부과해 대출금리를 낮추거나 차주가 원하는 만큼 대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대출보증 심사 과정에서 주택가격 산정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신력 있는 시세가 없는 주택은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차주가 원하는 만큼 대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담보대출 증가 폭이 지속해 줄고 있지만 10·15 대책 이전에 주택거래량이 증가했던 만큼 이달 중 주택담보대출이 시장을 두고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됐으나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적용을 유예했는데 이를 내년 6월 말까지 더 연장한 것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지방 부동산 및 건설경기 상황 등을 감안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비해 낮은 수준의 △ 스트레스 금리 △ 기본 적용율을△ 대출유

형별 적용비율이 계속 적용될 예정이다. 이 세 가지 항목을 곱해 최종 적용금리가 결정되므로 2단계는 3단계보다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박대준 쿠팡 대표 사임…美모회사 수습 나서나

쿠팡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을 지고 박대준 대표이사가 사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쿠팡은 따로 박 대표는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커지면서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과학기

지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김병석 위원장이 "한국 범인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제가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전체 책임을 지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미국 모회사 쿠팡 Inc.는 이번 사태를 적극적으로 수습하고, 고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박 대표의 후임으로 해롤드 로저스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을 쿠팡의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로저스 임시 대표는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법률·컴플라이언스(준법 경영) 분야의 전문가로, 쿠팡 내부에서는 '김병석'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로저스 임시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고객 불안을 해소하고, 대내외적인 위기를 수습하는 한편 조직 안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연합뉴스